“경제 소외 해소할 정책 개발…잘사는 광주 만들 것”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인터뷰

대담=윤현석 정치부 부장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은 민선 1~6기가 정치와 이념에 매몰돼 있었다면, 민선 7기 광주시장은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호남의 정치적 소외는 거의 해소됐지만 경제적 낙후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진단도 내놨다.

20일 광주시 서구 광주도시공사 2층 ‘민선 7기 혁신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당선인은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통합’과 ‘인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첫 인사는 ‘이용섭 답게’ 잘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다.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자신의 국정경험과 전문성, 혁신성을 더하면 지방자치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최근 투자협약식이 연기된 광주시·현대자동차 투자 합작법인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간내에 투자가 성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 일문일답.

-민선 7기 광주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동안 광주시 민선 단체장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낙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적 소외는 현 정권 들어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정치적 소외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다. 광주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국내 6대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3200만원보다 1000만원 정도가 적을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다. 앞으로 광주는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정의롭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장 잘 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

-지금 광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통합이다. 광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과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로마도 개방성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광주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4차산업 혁명시대 광주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개방과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광주를 위해 좋은 인물이 있다면 삼고초려와 경청의 자세로 모셔와 광주 발전을 이끌겠다. 시장 임기 동안 변화와 혁신에 역량을 쏟겠다. 과거 행자부 장관을 맡아 혁신을 주도했는데, 혁신은 저항과 갈등이 뒤따른다. 저항 관리,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이것이 혁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시정을 이끌겠다.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투자협약식이 연기됐는데 대책은.

▲협약식을 빨리 체결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6월 1일 접수된 투자의향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과제가 많은데, 서두르다보면 나중에 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겠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문화수도 광주의 시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은.

▲임기가 시작되면 전시와 공연을 자주 찾아다닐 것이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문화예술이다. 문화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 일자리도 나와야 한다. 문화에 광주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현대차 투자 꼼꼼히 챙겨 협약 빨리 끌어낼 것
문화가 광주 미래…일자리 나오는 문화도시 조성
광주형 일자리 등 전임시장 좋은 정책 유지 발전

- 3번 도전 끝에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3번의 도전 끝에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매우 새롭다. 그야말로 멀고도 긴 여정이었지만, 어렵고 힘들 때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광주를 발전시켜 은혜에 보답하겠다. 특히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후보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4년이라는 시간은 천지개벽을 하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자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주도해 시민, 언론, 시민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발전이라는 대명제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협치는 필수다. 더 낮은 자세로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겠다.

-민선 7기도 이웃한 전남·전북과의 상생이 화두로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을 희망과 번영의 천년으로 일구어가기 위해서는 한 뿌리에서 난 공동운명체라는 인식 하에 각자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통합경제권 차원에서 상생방안을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전남지사, 전북지사와 함께 하는 ‘호남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광주·전남과 전북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 호남은 함께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대승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계획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과 해당 기초단체장,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 광주와 전남이 각종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도생하면 경제적 낙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남에 광주를 더하고 광주에 전남을 보태야 동반성장하고 경쟁력이 살아나 상생할 수 있다.

-공약으로 제시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현재 조성중인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이 있는 공항 부지와 광주역 인근 최소한의 면적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면 신속하게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취임하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유치 TF팀을 꾸려 정부의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응하겠다. 광주는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선 6기 좋은 정책들은 이어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이 지속가능성이 없어지면서 효율성도 떨어진다. 전임시장의 정책 중 좋은 정책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중에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모델이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노사·지자체·시민단체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모델이다.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실현, 적정 근로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책임경영 구현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성공했을 때 긍정적 파급효과도 커 100대 국정과제도 포함돼 있다.

-현재 청년 실업률 역대 최악 수준이다. 민선 7기의 해법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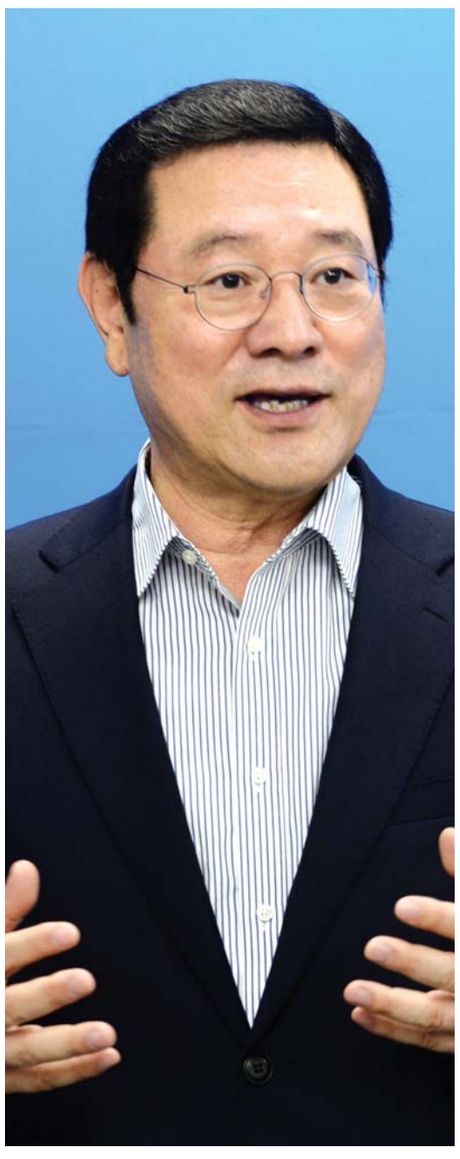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주요 원인은 인구 변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출산율이 높았던 1991~1996년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 약 39만 명이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데 기인한다. 특히 광주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살기가 팍팍해서 2012년 이후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약 8100명이 순유출되었는데, 이 중 약 66%가 20·30대 젊은이들이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대응해야 한다. 청년 체감형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형성 과정에서 수요자인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참여시키겠다.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잡매칭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또 일자리사업 예산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되도록 대상 사업을 정밀평가해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 청년 상인 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형으로 조성하겠다.

-인사 문제에 대한 견해는.

▲새로운 시장의 성공여부는 공정한 인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사의 기본원칙은 ‘적재적소’다. 정실·측근인사나 청탁인사는 철저하게 배격할 것이다. 혁신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들이 광주 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사 혁신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원칙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정리=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이용섭 당선인이 걸어온 길

▲함평군 출생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김대중 정부 관세청장 ▲국제심판원 원장 ▲노무현 정부 국세청장,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18대,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문재인 정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7일 광주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혁신위원회 출범식’ 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과 김윤수 광주혁신위원회 위원장, 7개분과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쭈~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다낭, 방콕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A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Daum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품격] 499,000원
◆ 기타큐슈, 벳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품격] 599,000원
◆ 기타큐슈 야마구치 3일 [품격] 549,000원 ※ 불포함사항 :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오사카, 나라, 교토 OR USJ 3일(세미더블) 499,000원~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89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마쯔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오마치 & 알펜루트 & 마츠모토 관광
7월 28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899,000원~ ◆ 3박4일 1,198,000원~

여름방학 가족여행 무안 ↔ 돗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총18항차]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품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품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총10항차]
7월 20, 23, 26, 29 8월 1, 4, 7, 10, 13, 16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품격] 5성급 1,350,000원 ※ 극성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왕복항공권 – 음료 서비스 / 기내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조트 3박(2인1실 기준), 1억원 여행자보험
* 특식 2회, 리조트식 3회, 코코넛 오일(or 드라이 망고) & 코코넛 비누 1SET(룸당) * 필리핀 현지 공항세[750페소/1인당] 포함
* 체험다이빙 무료강습, 라푸라푸 디스커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맛사지
* 시내관광(마젤란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막탄성당, 막탄슈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핑투어(씨푸드 중식)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랍니다.

광주 ↔ 제주도
◆ 2박3일(주중) 299,000원~, 2박3일(주말) 37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쭈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사(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특 가] 다낭 · 후에 · 호이안 4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6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포함사항이 다르오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6/20(수) 출발 확정)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오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